

(▶ 6면에 이어)  
업은 소비자 관리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거래를 한 고객들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 노트에 세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종관씨는 노트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매년 4월 중순경 우편물 발송을 통해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절각 예정일을 알려주며 고객의 발길을 농장으로 인도하고 있다.

“농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록해 둔 관리노트가 재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꼼꼼히 매일 기재하다보면 그 안에서 사슴관리 방법도, 고객 관리 방법도, 농장

운영 방식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최종관씨는 취재 내내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의 말대로 농장 운영 방법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관씨의 특별한 바로 ‘실천’이라는 부분이다. ‘계획’을 세우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귀찮아서, 어려워서, 바빠서...’ 등의 이유로 우리는 쉽게 계획을 포기하지만 최종관씨의 사례는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인지를 강변해 준다.

랜드산의 경우 건녹용 kg당 129달러로 생용 환산시 양당 1,470원, 러시아산 150달러(양당 1,709원), 중국산 144달러(양당 1,640원), 홍콩산 184달러(양당 2,096원) 등이다. 이를 수입녹용 전체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양당 1,572원에 불과하다. 생녹용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산 양당 1,195원, 호주산 1,094원으로 건녹용 보다 더 낮은 시세이다.

2004년 녹용수입 검역실적

국가명	녹 용			생 녹 용	
	중량(kg)	외화액(\$)	부적합(kg)	중량(kg)	외화액(\$)
뉴질랜드	64,502	8,319,333		98,260	3,129,846
호주	0	0		10,264	299,214
러시아	33,690	5,064,654	3		
아르헨티나	5,600	50,400			
중국	15,836	2,282,937			
카자흐스탄	495	79,050			
홍콩	16,705	3,076,170			
계	120,123	18,872,544	3	108,524	3,429,060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도별·산지별 녹용수입 동향

(단위 : kg)

구분	연도	총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홍콩	기타
건	98	67,238	47,678	0	1,839	1,604	11,045	5,072	0	0	0	0	158
	99	112,223	64,043	607	9,835	4,232	22,750	10,756	0	0	0	0	57
	00	64,040	21,930	0	7,322	3,398	26,078	5,312	0	0	0	0	0
	01	68,819	44,346	0	0	0	18,914	5,409	0	0	150	0	2,050
생	02	110,317	50,030	597	0	0	22,158	16,112	0	0	1,725	19,695	0
	03	90,823	42,238	0	0	0	8,663	18,161	7,000	0	450	14,311	0
	04	136,828	64,502	0	0	0	33,690	15,836	0	5,600	495	16,705	0
	98	22,560	17,911	0	4,649	0	0	0	0	0	0	0	0
생	99	80,457	35,228	10,543	26,379	8,307	0	0	0	0	0	0	0
	00	97,106	29,310	10,704	43,278	13,814	0	0	0	0	0	0	0
	01	90,734	76,822	13,302	0	0	610	0	0	0	0	0	0
	02	93,275	78,367	14,908	0	0	0	0	0	0	0	0	0
생	03	85,732	61,982	23,750	0	0	0	0	0	0	0	0	0
	04	108,524	98,260	10,264	0	0	0	0	0	0	0	0	0

\*98년~02년까지는 식약청 자료, 03~04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로 집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지난해 녹용수입 급증, 홍콩 중국 앞질러

0 녹용  
2004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녹용은 건녹용 12만1백23kg(1천8백87만불), 생녹용 10만8천5백24kg(3백42만불)이다. 이를 생녹용으로 환산하면 56만56kg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의 약 3배에 달한다.

그러나 밀수입 및 해외여행객 휴대녹용 등을 합하면 실제 녹용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녹용수입량 분포를 보면 건녹용의 경우 녹용대국인 뉴질랜드가 6만4천5백kg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3만3천7백kg, 홍콩 1만6천7백kg, 중국 1만5천8백kg 등이다. 특히 녹용생산이 전혀 없는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200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중국보다 많은 양을 기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홍콩은 2002년 1만9천7백kg, 2003년 1

만4천3백kg등을 한국으로 수출, 각각 전체 수입량의 17.8%, 15.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12.2%를 기록했다.

이는 북미(미국, 캐나다)지역의 사슴 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으로 지난 2001년부터 녹용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홍콩을 경유해 이들 국가 녹용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생녹용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98년 2만2천kg에 불과하던 수입량이 99년 8만kg으로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10만8천kg이 수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수 년 전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수입 생녹용 용도 외 불법유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수입녹용 가격을 살펴보면 뉴질

# 더 이상의 질병은 없다!

## 유구동물병원

### 질병 주정차 금지

### 사슴전문치료병원

■ 사슴인공수정 전문병원 ■

- 부제병 치료
- 난산 처치
- 각종 약품
- 24시간 진료
- 정액채취 및 제조
- 각종 수술
- 질병 상담
- 전국 왕진



**유구동물병원**

원장 이 동 열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구 275-10  
전화 : (041)841-5659  
H·P : 011-434-2559

농협 : 457040-52-147475 예금주 : 이동열

